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50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2 No.2 pp.41-54

창업지원제도가 1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창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승현 (중앙대학교 창업학 박사수료)**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에 창업지원제도를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과 정책자금, R&D자금 등의 창업자금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자의 행동도 창업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여 1인 창업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첫째,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창업기회발견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창업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의 개발단계, 사업화 단계, 마케팅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각 단계에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창업지원제도, 창업자행동특성, 창업기회발견, 창업기회활용, 기업경영성과

Ⅰ. 서론

최근 들어 196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중적인 은퇴에 따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들의 창업활동과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한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IT 및 모바일 등과 관련된 기술관련 창업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가능성 있는 아이템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숫자적으로는 증가되고 있지만 창업이후 2년 이내의 생존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창업기업들의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창업교육 및 전문컨설팅, 자금지원, 투자유치 등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기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창업이 일자리창출구현의 핵심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매출규모가 큰 건실한 벤처기업의 고용창출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2012). 특히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경제로 정의되고 있으며(OECD, 1996) 창의성과 아이디어 및 기술성을 위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기술창업은 일자리창출의 주체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이 지식기반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이 진화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창의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들의 경제가치 창출의 기회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보고서, 2013).

그러나 국내에서는 창업을 위한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소

* 주저자, 중앙대학교 교수 kimchangbong@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박사수료 lanule38@naver.com
· 투고일: 2017-03-02 · 수정일: 2017-04-13 · 게재확정일: 2017-04-27

요되는 관계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인당 GNI대비 14.6%로 OECD 평균 5.2%보다 거의 3배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이처럼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은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높임으로써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활발한 창업투자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경제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창업지원제도를 위한 예산편성과 제도시행 등을 통해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활성화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이재훈, 2013).

또한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행동에서 생계유지의 목적이 아니고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하는 기회형 창업률(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은 2012년을 기준으로 46%로 나타나 OECD 평균 53.6%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3) 이는 창업자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창업에 관련된 정보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창업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회형 창업기업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보고서,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것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정부의 창업정책과 자금지원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자의 기회발견행동과 기회활용행동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창업자 행동특성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창업지원제도의 요소들은 향후 정부의 창업지원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마련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는 정책적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나 지자체의 재정 등으로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크게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등의 정책지원과 정책금융, R&D자금 등의 자금지원, 그리고 창업시설, 공간제공 등의 인프라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지원정책으로는 창업지원, 사업재기 및 사업전환 지원, 금융관련 및 기술개발지원, 인력지원, 판로개발 및 수출지원, 기업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전통시장지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지원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초기부터 기술개발 및 경영진단까지 다양한 창업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창업사업화, R&D지원 등에 6,15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청은 26개 지원사업에 5,191억 원이 편성되었다(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7).

2.1.1 창업정책지원

정부는 자원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및 회계, 법무, 특허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창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강영욱, 2013). 이에 정부의 창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가의 초기자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청년창업의 기지로 교육과 취업현장을 연계시켰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열어 창업관련 사업비지원 및 창업교육 및 코칭, 창업공간과 숙박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김용집, 2014).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교육지원, 컨설팅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금지원보다는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지원과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지원이 더 효과적이다(김순태, 2013).

따라서 경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사업아이템에 대한 타당성분석, 예비시장조사, 해당 기술 및 경영교육, 정부의 지원정책안내 등 전반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송준일, 2009). 결과적으로 정부의 융자금, 출연금 등의 정책자금과 지자체 및 창업관련기관들의 창업자금은 단기적인 기업의 현금순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컨설팅이나 창업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정책이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현,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아이템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전략수립,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창업정책지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1.2 창업자금지원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제도란 정부가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자금을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무상지원 또는 금융기관 대출자금에 비하여 금리나 담보조건,

거치기간 등에서 유리한 융자 및 매칭 펀드출자 등을 통한 투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투자자금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창조경제타운, 2015).

지원자금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상용화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예비창업자나 기업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관기관이 위탁해서 집행하고 통상적으로 신청이후 1~2개월 정도의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

출연자금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초기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총사업비의 50%에서 최고 80%까지 출연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주로 중소기업청이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주관하고 있으며 과제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받은 출연자금의 10% 정도를 기술료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융자자금은 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지자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담보를 근거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투자자금은 개인 또는 법인 및 기관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투자주체로는 엔젤투자클럽,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및 투자전문기업 등이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태펀드출자나 엔젤투자형태로 투자활동 및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투자연계과제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의 소상공인창업지원제도는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금지원과 컨설팅지원제도가 매출액, 순이익, 고객증가율 및 운영관리능력 등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다(김미진, 2014).

또 다른 연구에서 소상공인창업지원제도를 소상공인정책자금, 자영업컨설팅, 상권정보시스템,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나들가게 지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에서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이용 빈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강영욱, 2013).

또한 소상공인은 충분한 투자자금을 가진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초저가전략을 구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과 더불어 고객확보를 위한 입지우월성은 물론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와 이에 대한 차별화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김상순 외, 2012).

이처럼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이런 기업의 경영개선효과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이 초기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공률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전봉준, 2012).

2.2 창업자의 행동특성

창업자의 행동이란 창업가의 특성 가운데 실제의 창업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창업가는 무엇보다도 창업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비전이란 비전의 속성과 내용 그리고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는 행동의 일체를 포함하며 비전의 속성과 내용은 창업가의 비전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비전 커뮤니케이션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아름, 2015).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창업자의 의도적인 행동임을 인식한다면 창업의도와 지각기반에 초점을 맞춘 검증 가능한 이론중심의 기업인식 프로세스모델이 필요하다(Bird 1988, Katz & Gartner 1988, Shaver & Scott 1991). 이에 창업자의 행동에 대하여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자의 의도는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과 같은 기본 프로세스에 대하여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창업자의 행동은 혼자의 태도나 상황에 따라 또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성격특성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예측된다. 즉, 외생적인 요소만으로 모델링하여 창업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설명력이 약하다(Ajzen 1991).

따라서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의도를 관찰함으로써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창업자의 신념, 성격, 또는 단순한 인구통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 확인된 의도는 계획된 행동에 대한 최선의 예측변수이다(Bagozzi et al., 1989).

창업초기 기업일수록 보유자원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창업자의 행동특성이 크게 부각되는 만큼,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이 이를 완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외, 2016)

2.2.1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

창업가정신을 가지려면 먼저 창업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창업기회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원자재 및 조직화 방법 등이 생산원가보다 더 많이 소개되고 판매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과정이지만, 기회 자체는 모든 당사자에게 항상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를 발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의사소통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Casson, 1982).

무엇보다도 창업기회는 기존의 재화, 용역, 원자재 및 조직화 방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특히 새로운 수단 및 목표와의 관계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이익만을 위한 모든 기회에 대한 큰 그림과는 다르다(Kirzner, 1997).

이에 조건의 범위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방안에 대한 단순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최적화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창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Baumol, 1993).

또한 창업의 기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선행연구에서의 초점은 제품시장 내에서 발생되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지만(Venkataraman, 1997), 신소재 발견의 경우처럼 요인시장에서도 창업의 기회는 존재한다(Schumpeter, 1934).

제품시장의 창업에서 세 가지 범주의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신기술 발명과 함께 새로운 정보창출의 기회, 둘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시기와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시장비효율성의 활용기회, 셋째, 정치적, 규정적 또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같이 자원에 대한 대안적 사용의 상대적 비용과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Drucker, 1985).

이전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창업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회구성원마다 자원의 상대가치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Kirzner, 1997).

따라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회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개인은 기회가 존재하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때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확신에 대한 불균형성이 창업기회의 존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명확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다(Hayek, 1945).

어느 시점에서 인구의 일부 집단만이 주어진 창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창업가들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얻고, 이를 이용하여 기회를 창조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Kirzner, 1973), 이는 이후 연구들(Kaish & Gilad, 1991; Busenitz, 1996)에서 강화되어, 창업가들이 회사의 경영자들에 비해 기회를 찾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Hills와 Shrader(1998) 그리고 Zietsma(1999) 또한 성공적인 창업가들이 높은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Timmons & Spinelli, 1999). 또한 기회의 발견은 거대한 제품혁신을 통해 한 부문에서 낮은 가치를 가졌던 기술이 다른 부문에서 높은 가치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였다(Christensen, 1997).

창업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보다 이전의 조직에서의 경험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회발견과 관련하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업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창업환경을 인지함으로써 혁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고 파악하는 반면에 구조주의자들은 창업자들이 획득한 정보를 통해 잦은 실패의 경험과 직관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해석함으로써 기회를 얻는다고 파악하고 있다(임아름, 2015).

이처럼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회와 관련된 창업자의 과거의 경험과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창업자의 선행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경험은 기회발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hane et al., 2000).

결론적으로 창업기회의 추구는 사람들에 따라 많은 단계를 선택하는 진화적 과정이기 때문에 기회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자원을 추구하며 활용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기회발견 이후의 결정은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또한 인간의 동기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누가 창업기회를 추구하고, 자원을 조립하고, 창업프로세스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Shane, et al., 2000).

2.2.2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가는 평균적으로 기대가치가 더 높은 기회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예상수요가 클 때(Schmookler, 1966; Schumpeter, 1934), 산업의 이윤율이 높게 나타나고(Dunne, et al., 1988), 기술수명주기가 초기일 때가(Utterback, 1994) 기회의 활용이 더 일반적이고(Hannan & Freeman, 1984) 다른 참가자에 대한 평가수준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Aldrich & Wiedenmeyer, 1993).

이처럼 기회의 발견은 창업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회를 발견한 후에 잠재적인 창업가는 기회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발견된 기회를 포기하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발견된 모든 기회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회에 대한 공동특성과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견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다(Venkataraman, 1997).

기회의 특성자체가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기회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며 이는 기대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창업기회에 대한 활용은 창업가가 기업이익의 기대가치가 다른 대안의 기회비용, 시간투자의 유동성 부족, 자금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하겠다(Kirzner, 1973; Schumpeter, 1934). 따라서 모든 잠재적인 창업가들은 동일한 기대가치를 가진 기회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기회를 활용하려는 결정은 기회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비용과 다른 방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회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회비용이 낮을 때 기회를 추구하는 대안에 따라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게 된다(Amit, et al., 1995, Reynolds, 1987).

또한 사람들은 기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한다. Evans와 Leighton(1989)은 사람들이 금융자본이 더 많을 때 기회활용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Aldrich 와 Zimmer(1986)는 자원제공자들과의 보다 강한 사회적 관계가 자원의 획득을 촉진하고 기회활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Cooper, et al.,(1989)는 사람들이 이전 직업에서 창업기회에 유용한 정보를 개발했다면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마도 그러한 정보가 기회활용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경험으로부터의 기회(Cooper et al., 1989)뿐만 아니라 이전의 창업경험에서의 정보이전 가능성은 학습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창업기회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하였다(Carroll & Mosakowski, 1987). 또한 창업기회를 활용하려는 결정은 개인의 인식차이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 노력 및 필요자금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하락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Venkataraman, 1997).

이에 몇몇 연구자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발적 의지에 대한 개인차가 창업기회를 활용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Kihlstrom & Laffont, 1979).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긍정적 인식에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Palich & Bagby, 1995). 그러므로 창업기회를 활용하려는 결정은 낙관주의에 관한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실제보다 높고 동종업계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도 훨씬 높다고 하겠다(Cooper, et al., 1989).

더욱이 이들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때, 그들은 규모의 경제가 최소한으로 효율적인 규모이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에 진입하고(Audretsch, 1991), 또 그들은 전체기업의 평균보다 빠는 속도로 산업에 진입한다(Gort & Klepper, 1982).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부분의 새로운 기업들은 실패하고 있으며(Dunne et al., 1988),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낙관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Audretsch, 1991).

평균적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발견한 기회의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Kahneman & Lovallo, 1993),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검색을 시작하며(Kaish & Gilad, 1991), 사람들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기회활용을 유도하고 있다(Busenitz & Barney, 1997).

기회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설명할 때 다른 개인의 차이가 중요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기회활용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하기 때문에 더 큰 자기효능감과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Chen, et al., 1998). 이에 따라 기회주의적 창업가, 즉 높은 교육수준과 경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창업가들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Maxwell & Westerfield, 2002).

결과적으로 기회활용의 확률을 높이는 속성이 반드시 성공확률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주어진 산업에서 기회를 발견한 개인들 중 비관적인 사람들은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것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발견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사람들은 정보를 제한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적인 예측에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Shane, et al., 2000).

2.2.3 기업의 경영성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개념은 전략적인 관리의 중심에 있다. 대부분의 전략적 경영이론은 경영성과가 어떤 전략에 대한 실증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결과를 강조한다고 하였다(Schendel & Hofer, 1979).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영성과에 대한 향상은 전략적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과 또는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은 실행가능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식적으로, 전략적 경영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중요성은 이론적, 경험적, 경영적인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다고 하겠다(Cameron & Whetten,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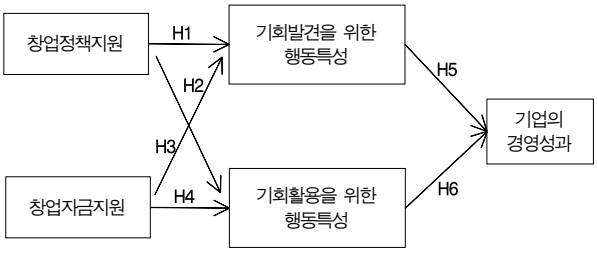
연구에 따르면 창업가의 행동특성 중 창업가지향성이 우수한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찾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창업가지향성이 항상 적절한 전략적 방향인지 또는 경영성과와의 관계가 더 복잡한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창업가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Venkatraman, & Ramanujam, 1986). 또한 기업의 내외부요인이 창업가의 행동특성 중 창업가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완화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Lumpkin & Dess, 1996).

이처럼 창업기업 초기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 성과는 찾아내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초기 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성과는 정성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Covin & Slevin, 1991).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인의 행동특성 또는 개인적 역량과는 관계없이 사업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하여, 효율성 제고에 의한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1인 기업 창업자의 창업기회 발견 및 활용에 대한 각각의 행동특성에 창업지원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에 따라 기업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제도를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과 정책자금, R&D자금 등의 창업자금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자의 행동도 창업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에서 정책지원 및 자금지원부분이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고자 한다. 특히 기회발견을 통해 그 기회를 창업실행으로 활용하는 창업자의 행동에 정부의 또는 지자체의 창업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2.1 창업정책지원과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고 그러한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창업가의 통합적인 역량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창업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획득과 조합, 재배치로 설명할 수 있다(Baum et al., 2001). 이에 따라 정부지원정책과 기업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부지원정책 요인은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정책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차별화전략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컨설팅지원으로 나타났다(김순태, 2013).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에서 경영컨설팅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미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최동락, 2012).

창업정책지원이 창업자의 창업기회발견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논문은 많지 않았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창업지원제도 중에서 창업정책지원이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정 하에 1인 기업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을 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정책지원과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

기회활용은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의미한다(Scott & Bruce, 1994). 따라서 신념, 성격, 또는 단순한 인구통계가 아닌 창업자의 기회활용의 의도를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Bagozzi et al., 1989).

또한 기회활용은 모호함을 포함하며 모호성에 대해 더 큰 관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Begley & Boyd, 1987). 그러므로 기회활용은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설정이며 성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McClelland, 1961). 결과적으로, 성취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보다도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창업정책지원들이 기회활용을 위한 단서 제공의 역할을 한다는 추정 하에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자금지원과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

기회발견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자원의 결합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장래 유망한 사업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이동하거나 전환하는 것이다(Venkataraman, 1997). 특히 자금지원 등의 외부환경과 창업자의 역량이 결합되면 기업가적 유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Shapero,1982). 이에 조건의 범위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방안에 대한 단순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최적화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창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Baumol, 1993).

따라서 기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추구에 대한 타이밍이 창업기업의 향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회발견의 적절한 타이밍을 강조하였다(Timmons & Spinelli, 1999).

이러한 새로운 창업기회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자금에 대한 적기의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금지원이 창업자가 창업기회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창업자금지원과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

창업가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창업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이에 따라 기회활용을 위한 사업아이템의 선정은 창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 주장하였다(Longenecher & Moore, 1987).

또한 창업자원의 획득활동에는 창업자금의 조달과정, 창업교육의 유무, 전문가상담 등이 있는데 이런 창업자원의 획득활동은 창업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의 부분에서 행해지는 과정들이다(임아름, 2015).

따라서 기회활용은 자금제공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가의 이익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한다. 즉, 정보유포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의사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학습은 이익추구와 결합되어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추구하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다(Kirzner, 1997).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금정책이 창업자의 창업기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과 기업경영성과

새로운 창업기업의 출범시점은 갑자기 기회가 생길 때와 같이 상대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를 관찰함으로써 계획된 창업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창업자의 행동에 의한 의도는 계획된 행동에 대한 최선의 예측변수이기 때문이다(Bagozzi et al., 1989).

다시 말해 창업자의 의도는 행동을 예측하고, 특정태도는 의도를 예측하기 때문에 의도는 행위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Ajzen, 1991). 따라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으로, 창업자의 행동특성, 창업과정, 초기기업의 특성 및 대내외 환경 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Cooper, 199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이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과 기업경영성과

창업자의 업종경험이나 창업경험 등 창업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매대상 및 판매망의 확보, 우호적 네트워크 형성, 보다 많은 정보의 접근가능성,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 등에서 과거의 업종경험 및 창업경험이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경영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김종하, 2009). 이처럼 창업자의 행동특성 중에서 심리적 특성과 경력특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김민수, 2009).

정부지원정책과 기업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부지원정책 요인은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정책 등으로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태, 2013). 무엇보다도 정부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업이익의 증가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이 초기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공률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봉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변수들에 대하여 기존에 정의 된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일부를 수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창업정책지원	창업교육, 전문 인력 및 경영컨설팅 지원, 컨설턴트의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지원기관의 정보제공	김정곤, 2016 박성호, 2016 김용집, 2014
창업자금지원	정부의 창업자금정책,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정부의 자금지원서비스의 규모, 절차, 체계, 다양한 네트워크의 보유	유상정, 2015 김상순, 2011 박남규, 2014 신유섭, 2013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	창업아이디어의 선정, 잠재적 아이템에 대한 발굴노력,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 창업교육 및 세미나 참석경험, 제품 및 서비스의 구체화 노력, 창업기회의 구체화 노력, 아이디어실현을 위한 시간투자 여부	강숙자, 2003 고봉상, 2004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	자금조달계획수립, 보유자금의 활용여부, 금융기관 활용여부, 장비구매 및 대여, 인원충원, 창업을 위한 개인시간 포기여부	강숙자, 2003 고봉상, 2004 임아름, 2015
기업의 경영성과	매출액의 변동정도, 고용인원의 증감 여부, 기술개발 능력의 향상정도, 현금유동성 및 수익성 증가, 보유자산의 증가여부	김호정 2012

자료: 기존문헌을 연구자 재정리

4.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정책지원은 7개 문항, 창업자금지원은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수인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은 8개 문항,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은 6개 문항으로, 종속변수인 기업의 경영성과는 7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3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대상선정은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사업에 참여중인 민간 및 지자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6곳을 선정하여 그곳에 입주한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2016년 9월5일부터 10월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230부를 배포하여 최종 161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14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4 표본의 특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자 75.4%, 여자 24.6%이고 연령대는 30세에서 39세가 40.8%, 40세에서 49세가 35.9%로 나타났으며 사업 분야별

로는 서비스업 24.6%, 지식서비스업 18.3%, 제조업 15.5%, IT 관련업 14.1%로 나타났다. 또한 현 업종에 대한 실무경험은 10년에서 20년 이하가 29.8%로 가장 많으며 5년에서 10년 이하는 23.4%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은 전체의 61.3%가 전혀 없는 것으로 대답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의한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Ⅴ. 실증분석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Cronbach's alpha 신뢰계수 값의 범위는 0 과 1 사이의 값으로, .8-1.0의 경우는 강한 관련성을 의미하고, .4-.7은 상당한 관련성임을 의미한다. 또한 .2 - .4의 경우는 약간의 관련성, .-.0의 경우는 대부분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기회발견의 cronbach's alpha=.870, 기회활용의 cronbach's alpha=.649, 기회발견의 cronbach's alpha=.901, 정책지원의 cronbach's alpha=.845, 사업성과의 cronbach's alpha=.912로, 모두 .8-1.0 사이에 있어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문항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잠재요인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측정문항으로 얻어진 값을 사용한다. 이는 측정문항으로 잠재요인을 설명하는 정도 및 개념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는데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chi 2$=370.739(df=237, p=.000)로 나타났다.<표 2>

<표 2> 신뢰성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변수	비표준화 추정계수	표준 오차	C.R	SMC	요인 부하량	AVE (C.R.)	cronbach's alpha(α)
기회발견	아이템 발굴 노력	1			0.459	0.677	.561 (883)	.870
	주위 의견 청취	1.413	0.172	8.238	0.623	0.789		
	교육 및 세미나 참석	1.157	0.176	6.563	0.348	0.590		
	제품 구체화 논의	1.326	0.152	8.745	0.653	0.808		
	기회 구체화 논의	1.244	0.140	8.891	0.735	0.857		
	시간투자	1.22	0.151	8.090	0.548	0.741		
기회활용	금융기관 활용	1			0.339	0.583	.389 (.653)	.649
	장비구매 및 대여	0.814	0.184	4.424	0.288	0.537		
	인원 충원	1.118	0.232	4.813	0.540	0.735		
정책지원	창업교육	1			0.524	0.724	.616 (865)	.901
	경영컨설팅	1.283	0.142	9.003	0.678	0.823		
	코칭 및 멘토링	1.226	0.129	9.524	0.664	0.815		
	창업지원기관의 네트워킹	1.089	0.129	8.431	0.598	0.773		
자금지원	정부의 창업자금	1			0.727	0.853	.624 (.892)	.845
	자금지원에 참여	0.908	0.086	10.514	0.617	0.785		
	자금지원사업의 도움	1.069	0.088	12.203	0.746	0.864		
	다양한 네트워크 보유	0.871	0.084	10.349	0.586	0.765		
	자금서비스의 적절성	0.697	0.082	8.537	0.445	0.667		
경영성과	매출액 증가	1			0.607	0.779	.634 (.911)	.912
	고용증가	0.748	0.098	7.633	0.388	0.623		
	브랜드인지도 증가	0.886	0.100	8.874	0.501	0.708		
	현금유동성 향상	1.021	0.095	10.804	0.689	0.830		
	수익성 증가	1.104	0.091	12.173	0.834	0.913		
	보유자산 증가	1.092	0.093	11.731	0.784	0.886		
모델 적합도	$\chi 2$ = 370.739 (df = 231, p = .000), GFI = .825, NFI = .840, IFI = .814, TLI = .924, CFI = .935							

증분적합지수를 보면 기초적합지수(GFI)는 .825, 표준적합지수(NFI)는 .840, 터커-루이스지수(TLI)는 .924,증분적합지수(IFI)는 .936, 비교적합지수(CFI)는 .935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는 일반적으로 1에 근접한 값을 수용수준으로 권장하는데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변수 간 인과관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경로			경로계수 (Estimate)	표준오차 (S.E.)	t값 (C.R.)	P값	가설
H1	정책지원	→	기회발견	0.121	0.082	0.936	0.349	기각
H2	정책지원	→	기회활용	0.372	0.194	2.128	0.033	채택
H3	자금지원	→	기회발견	0.427	0.071	3.074	0.002	채택
H4	자금지원	→	기회활용	0.058	0.149	0.347	0.729	기각
H5	기회발견	→	경영성과	0.346	0.146	3.68	***	채택
H6	기회활용	→	경영성과	0.212	0.094	2.001	0.045	채택
모델 적합도	$\chi 2$ = 383.607 (df = 240, p=.000), GFI = .819, NFI = .835, IFI = .931, TLI = .919, CFI = .930							

*** P<0.01, ** P<0.05, * P<0.10

5.2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기회발견, 기회활용, 정책지원, 자금지원 요인들 간의 관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표 3>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은 정(+)의 방향과 부(-)의 방향으로 p<.05 수준에서 적합도 지수중 GFI(기초적합지수)=.819, NFI(표준적합지수)=.835, IFI(증분적합지수)=.931, TLI(비표준적합지수)=.919, CFI(비교적합지수)=.930로 나타남에 따라 적합도 척도는 연구단위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지원, 창업자 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정책지원은 기회발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과 “창업자의 자금지원은 기회발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자의 정책지원은 기회발견에 유의(β=0.121, t=0.082, p=.349)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지원은 기회발견에 유의(β=0.427, t=0.071, p=.002)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고, 가설2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자의 지원과 기회활용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창업자의 자금지원은 기회활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과 “창업자의 정책지원은 기회활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창업자의 자금지원은 기회활용에 유의(β=0.058, t=0.347, p=.729)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지원은 기회활용에 유의(β=0.372, t=0.194, p=.045)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고,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 행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회활용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와 “기회발견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로, 기회활용은 경영성과에 유의(β=0.212, t=.093, p=.045)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회발견은 경영성과에 유의(β=0.346, t=.146, p=.000)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 가설 6은 채택되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6.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최근 들어 창업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창업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각종 창업지원제도가 1인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관련 지원제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는 창업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1인 창업자들의 행동특성과 창업지원정책들이 창업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창업자가 창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선정된 아이템을 상용화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는지 등의 차별화된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위함이다.

이에 창업자의 행동특성을 매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만들어 선행연구조사를 통한 가설을 설정하고 정부지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의 대표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은 인큐베이션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창업초기인 인큐베이션단계에서는 시장에서의 고객니즈를 확인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하고, 사업화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아이템을 선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 등을 제작한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창업과정들은 주로 창업자 본인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의 창업자의 과거경력 및 업무경험과 역할 등이 창업기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관련교육이나 사업전략 멘토링, 경영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은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확보하는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확정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창업기회의 활용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한 경영역량강화, 마케팅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좋은 기술의 개발보다는 어떻게 빠르게 기술을 획득하고 그 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초기 기술획득과 기술역량확보가 창업기업의 성과와 미래성장에 대한 중요한 구성요인이 되고 또한 한정된 자원과 자본으로 생존해야만 하는 창업기업에게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 기술개발은 초기 인큐베이션 단계에서는 상당한 시간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

둘째,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치제안 및 기존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정부정책, 기술트렌드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상용화 이전에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를 통한 개선과정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자금의 예측이 필요하고 물적자원에 대한 확보 즉, 창업자금지원이 필수적 요소라고 하겠다.

반면에 활용단계에서의 창업기업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들보다 환경적인 불확실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책자금조달이 수월하지 않다. 이런 관계로 창업자금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개발 등의 차별화된 기술성확보를 통해 외부자본인 VC의 투자자본금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기업 성장단계의 핵심활동으로는 생산 및 판매, 시장점유율의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기술개발의 결과물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제품출시로 인한 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생산설비 등 새로운 외부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단계이다. 무엇보다도 이 성장단계에서 기업들은 생산량증가와 경쟁사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 자동화, 생산 공정혁신, 제품개선을 통한 제품차별화와 추가적인 신제품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부기술개발 역량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기술개발자금 등의 자금지원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창업자의 창업기회발견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가 확인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야 하겠다. 또한 설정된 사업모델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대상고객에게 가치제안을 통해 차별화요소 및 사업프로세스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수익모델을 확정해야 하는 등, 창업자는 창업기회발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에 따라 사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말하고 있다.

첫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시장 및 고객분석, 시제품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며 창업이후 도약단계에서는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화 방향설정에 필요한 컨설팅,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창업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의 개발단계, 사업화 단계, 마케팅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각 단계에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y)을 극복해야 한다. 아이디어 창출의 신기술개발단계에서는 원천기술에 대한 응용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하고 시제품개발단계에서는 상용화를 위한 모델개발 자금, 마케팅단계에서는 양산제품에 대한 시장 런칭, 유통채널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의 영속성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은 성장단계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소요되는 자금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여 1인 창업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정책지원은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 창업자금지원은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제도를 창업정책지원과 창업자금지원의 개념 및 정의로 구분하는 기준의 설정에는 한계가 있었고 창업자의 행동특성을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의 변수로 규정하기에는 설명력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대

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창업지원제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고 오류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단계별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있어야하겠으며 이를 통한 정책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강숙자(2003), *한국 벤처기업의 전략유형, 조직특성 및 환경의 불확실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강영욱(2013),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의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고봉상(200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김미진(2014), *소상공인지원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민수(2009), *창업보육기업의창업자특성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상순(2011),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김상순·김종원·양영석(2012),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67-175

김수잔·한정화·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2

김순태(2013), *소상공인특성과 정부지원 정책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대학원

김용집(2014), *창업지원정책과 고용률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김정곤(2016),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김종하(2009),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호정(2012), *창업보육 특성과 지원서비스가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남규(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성호(2016), *창업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경제적실패 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기업협회(2012), *2012벤처천억기업 조사보고서*

송준일(2009),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유섭(2013),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상정(2015), *의사결정성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이승현(2014), *창업자의 특성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의도에 개인적 특성, 대학 및 사회의 지원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금오공대 대학원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전봉준(201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영향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소기업청(2017),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보도자료

창조경제타운(2015), 정부 창업자금 활용전략, 아이디어 사업화 성공 가이드, 5

최동락(2012),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보고서(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ldrich, H., & Zimmer. C.(1986), Entrepreneurship through social network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ss.: Ballinger*, 2-23.

Aldrich, H. E., & Wiedenmayer, G.(1993). From traits to rates: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foundings.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1*(3), 145-196.

Amit, R., Muller, E., & Cockburn, I.(1995), Opportunity costs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2), 95-106.

Audretsch, D. B.(1991), New-firm survival and the technological regi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41-450.

Bagozzi, R. P., Baumgartner, J., & Yi, Y.(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0*(1), 35-62.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Baumol, W. J.(1993), Formal entrepreneurship theory in economics: Existence and bound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197-210.

Begley, T. M., & Boyd, D. P.(1987), A comparison of entrepreneurs and managers of small business firms. *Journal of management*, *13*(1), 99-108.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Busenitz, L. W.(1996), Research on entrepreneurial alert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4), 35.

Busenitz, L. W., & Barney, J. B.(1997),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in large organizations: Biases and heuristic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1), 9-30.

Cameron, K. S., & Whetten, D. A.(1983), Organisational effectiveness: One model or several. *Organisational effectiveness: A comparison of multiple models*, 1-24.

Carroll, G. R., & Mosakowski, E.(1987), The career dynamics of self-employ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70-589.

Casson, M.(1982), *The entrepreneur: An economic theory*. Rowman & Littlefield.

Chen, C. C., Greene, P. G.,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Choi, D. R.(2012), *A Study of the Effects of a Support Program for Small Enterprise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 on Area Busa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Christenson, C.(1997), The innovator's dilem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ambridge, Mass.
Cooper, A. C., Woo, C. Y., & Dunkelberg, W. C.(1989), Entrepreneurship and the initial size of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4*(5), 317-332.
Cooper, A. C.(1993), Challenges in predicting new firm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41-253.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Critical perspectives on business and management*, *3*, 5-28.
Drucker, P. F.(1985),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3*(3), 67-72.
Dunne, T., Roberts, M. J., & Samuelson, L.(1988), Patterns of firm entry and exit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495-515.
Evans, D. S., & Leighton, L. S.(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base*
Gort, M., & Klepper, S. (1982). Time paths in the diffusion of product innovations. *The economic journal*, *92*(367), 630-653.
Hannan, M. T., & Freeman, J.(1984), Structural inertia and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9-164.
Hayek, F.(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35, 519-530.
Hills, G. E., & Shrader, R. C.(1998), Successful entrepreneurs' insights into opportunity recogni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8*, 30-41.
Jeon, B. J.(2012), *Analysis on Effect & Influence of SBC's Business Startup Funding Program,*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ahneman, D., & Lovallo, D.(1993), Timid choices and bold forecasts: A cognitive perspective on risk taking. *Management science*, *39*(1), 17-31.
Kaish, S., & Gilad, B.(1991), Characteristics of opportunities search of entrepreneurs versus executives: Sources, interests, general alert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1), 45-61.
Kang, S. J.(2003),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ategic group, Organizational context,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performance of Korea venture enterpris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Kang, Y. W.(2013), *A Stud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s of Potential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atz, J., & Gartner, W. B.(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Kihlstrom, R. E., & Laffont, J. J.(1979), A general equilibrium entrepreneurial theory of firm formation based on risk aver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4), 719-748.
Kim, J. G.(2016),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im, J. H.(2009), *Influence of a Young Entrepreneur's Traitson Business Outcome Based on Small Business Entrepreneu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im, M. J.(2014), *Study on Effect of support Program for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Enterprises: Focusing on Gyeong-gi Are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im, M. S.(2009), *A study on Influence to Business performance of business incubator Company via CEO's Characteristic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im, S. S.(2011), *Impact analysis of Government start-up promotion policies on the performance of self-employed business through the characters of start-up process,* Master's Thesis, Han Bat university
Kim, S. T.(2013),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Micro-enterprise on Business Strategy and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k University
Kim, S. J., Han, J. W., & Lee, S. M.(2016),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49-61
Kim, S. S, Kim, J. W., & Yang, Y. S.(2012), A study on Assessing Positive Impacts to Small Business Startups by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Small Busi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167-175
Kim, Y. J.(2014), *The research of the relation between business foundation policies and employment rate focusing on recent 3 governments' business foundation support program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Start-up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Kim, H. J.(2012), *A Study on the Business Incubator Characteristics, Supporting Services and Firm'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Kirzner, I.(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Ko, B. S.(2004),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venture busines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Lee, S. H.(2014), *A Study on Effect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The Support Service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Start-up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Lee, J. H.(2013), *The Influence Effects of Personal Traits, University and Social Supports on Student's Startup Intention,* Department of Consulting, Graduate School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Lim A. R.(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Longenecher, J. G., & Moore, C. W.(1987), *Small Business Management, Cincinnati,* Ohio: South-Westrn Publishing CO,. 81-83.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Maxwell, J. R., & Westerfield, D. L.(2002), Technological entrepreneurism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adop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67*(1), 9.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D. Van Norstrand Company. *Inc. 196l.*

OECD(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OECD/GD(96) 102

Palich, L. E., & Bagby, D. R.(1995), Using cognitive theory to explain entrepreneurial risk-taking: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6), 425-438.

Park, N. G.(2014),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ark, S. H.(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SME start-up Environmen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Fear of Business Fail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Reynolds, C. W.(1987), Flocks, herds and schools: A distributed behavioral model. *ACM SIGGRAPH computer graphics*, *21*(4), 25-34.

Ryu, S. J.(2015), *The Influence of Decision-Making Tendencies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ies on Senior Entrepreneurial Succes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Schendel, D., & Hofer, C. W.(Eds.).(1979), *Strategic management: A new view of business policy and planning*. Little, Brown.

Schmookler, J.(1966), *Invention and economic growth.*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cott, S. G., & Bruce, R. A.(1994),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A path model of individual innovation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580-607.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Shane, S., Locke, E. A.,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Shapero. A.(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Sexton & K. Vesper(End.).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Y: prentice Hall.

Shaver, K. G., & Scott, L. R.(1991), Person, process, choice: The psychology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2), 23-45.

Shin, Y. S.(2013),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Business Incubators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Entrepreneurial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ong, J. I.(2009), *A Study on Efficient Methods of Improving the Government's Supporting Policies for Small & Medium sized Firm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Management & Design, Han-yang University

The World Bank(2014), *Doing Business database*

Timmons, J. A., & Spinelli, S.(199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Utterback, J.(1994), *Mastering the dynamics of innovation: how companies can seize opportunities in the face of technological change.*

Venkataraman, S.(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3*(1), 119-138.

Venkatraman, N., & Ramanujam, V.(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01-814.

Zietsma, C.(1999), Opportunity knocks-or does it hide?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opportunity recognition in entrepreneurship.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1), 242-256.

A Study on Influence of Entrepreneur Behavior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ntrepreneurial Support System

Kim, Chang Bong*
Lee, Seung 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support system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for enhancing the success rate of the startup firms affected th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founders. It is divided entrepreneurial support system into entrepreneurial policy support such as entrepreneurial education, mentoring and consulting, and funding of startup support such as policy fund and R & D fund, distinguished the behavior of founder into behaviors for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behaviors for exploiting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In order to analyze whether it affects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 research model was creat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hypotheses were set up, and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based on this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 support for entrepreneurial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Second, it is found that the startup support such as policy fund affects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finding the opportunity of the founder, but it does not affec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the opportunity exploi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founding opportunity and exploi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nfluenced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obtained,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stage of growth of startup companies. Second, startup companies grow through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ideas,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at each stage, entrepreneur must overcome the so-called Death Valley, which requires funding.

Keywords: Startup support system, Entrepreneur behavior characteristics,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xploi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Business performance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kimchangbong@cau.ac.kr
** Doctor completion, Chung-Ang University, lanule38@naver.com